

지역 소식통

내장산문화광장 주변
임산물 체험단지 조성

정읍시가 임산물 특화제품 개발과 임산물 생산능률 소독증대,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관련해 시는 내장산문화광장 주변인 쌍암동 541 일원에 국·도비 32억 5천만 원 포함 총 50억 원을 들여 '임산물 체험단지' 조성에 한창이다.

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산림청으로부터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승인 받고 정읍시 임산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임산물 먹거리, 재배기술 보급 등 임산물 산업을 위해 차원대원, 차원문화관 조성 등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재정투자심사,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거쳐 2019년 사업을 착수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임산물 체험단지 내 주요시설은 ▲차원대원 ▲차원문화관 ▲임산물 향기온실 ▲목재문화체험관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막걸리 특화거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정읍시는 지난 22일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읍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 입지 여건과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행했다.

시는 참치원 원도실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소재로 한 정읍 막걸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거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거리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해 특화거리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구간 내 사업참여자가 모집은 자생능력과 강한 참여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별난 이야기 책으로 엮어

고창군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기네스 2020' 발간 세계문화유산·지역 최장수 이발사 등 129건 담아

고창군민들의 별난 자랑거리와 이색 기록을 책으로 엮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기네스 2020'가 발간됐다.

24일 고창군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 기네스 2020'을 발간하고, 유기상 군수가 직접 지역 최장수 이발사인 김하영(64년간 이발관 운영) 할아버지를 찾아 친필 서명한 책을 전달했다.

기네스 책자는 세계유산, 자연환경, 인물, 문화·예술·체육분야, 산업경제, 건설건축, 교육·복지·행정, 별난 수집·기록가 등 8개 분야로 나뉘 총

129건을 담아 알기 쉽게 수록했다. 고창기네스는 고창을 자랑할 수 있는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것, 지역 특성과 부합하고 고창의 이미지 제고에 부합하는 것, 주민들의 까나 자랑거리, 숨은 재주 등 별난 이색적인 것 등을 중심으로 사진과 함께 흥미롭게 엮어냈다. 책에 수록된 한분 한분의 기네스 기록을 읽다 보면 달인이나 기네스 감에 오르기까지의 숨은 노력, 인생의 역경을 엿볼 수 있어 하나의 성공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쉽게 눈

을 땔 수 없고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고창기네스에 수록된 화제작으로는 ▲반백년 동안 우표를 모은 우표수집가(조기담) ▲최다 다양한 못 수집가(진윤식) ▲29년째 시내를 누비는 그랜저(조희만) ▲33년째 이어진 추석 맞이 변민행사(무장면민 노래자랑) ▲4500송이가 열리는 유기농 포도나무(도덕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집(연간 50여명, 최은섭·이경희 씨택) 등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 기네스는 고창의 숨은 자랑거리, 별난 사람, 별난 이야기 등을 발굴해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고창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책으로 발간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양봉산업 활성화 팔견어

2억7000만원 상당 기자재 지원

고창군이 청정지역의 장점을 살린 꿀 산업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지역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해 양봉 기자재(벌통, 화분, 소초광, 채밀기, 말벌 퇴치장비 등) 2억7,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외래종 말벌인 등검은말벌 방제에 힘쓰고 있다. 등검은말벌은 10월까지도 기승을 부려 이 시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군은 양봉농가에 등검은말벌 퇴치요령 자료를 보급하고, 말벌 포획기 등을 지원해 말벌 피해에 의한 양봉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봉산업은 벌꿀과 로얄젤리 등 1차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진과 더불어 꿀벌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 보전과

유지가 이뤄지는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관내 양봉농가의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앞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부터



고창군은 올해 지역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해 양봉 기자재(벌통, 화분, 소초광, 채밀기, 말벌 퇴치장비 등) 2억7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시행되면서 양봉농가의 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서양벌 30군 이상 사육 농가이며,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 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완료"

7061농가 60만원씩 선불카드 수령... 유효기간은 5년

부안군은 관내 7061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42억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2년 이상 전복도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유지

하고 실제로 1,000㎡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7600농가의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을 거쳐 7,061농가를 지급대상으로 결정했다.

지급대상 농가들은 공익수당을 신청

한 각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받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을 통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로하고 참치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순아)는 24일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송편을 직접 빚어 나누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정읍시여성단체협 '사랑의 송편' 빚다

독거노인 세대 50가구에 전달

정읍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순아)는 24일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송편을 직접 빚어 나누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전에 취약계층을 위한 밑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유진섭 시장의 배우자 오명숙 여사도 이른 아침부터 송편 만들기 손을 보태며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데 힘을 더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 쌀 40kg 분량과 모싯잎 재료를 이용해 송편을 빚고 찜기에 찐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만든 송편을 지역 내 독거노인 세대 50가구에 각각 전달했다.

송편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코로나

내로 자녀들이 명절에 못오게 되어서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든 송편을 전달해주니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김순아 회장은 "송편은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인 만큼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해마다 만들고 있다"며 "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추석을 맞아 여성단체협의회의 따뜻한 동행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12개 소속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는 4월부터 월 2회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과 동절기 김장나눔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해 오며 이웃에 앞장서며 따뜻한 사회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선정

총 483억원 예산 확보

부안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1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진서면 곰소리 곰소지구가 신규로 선정돼 총 48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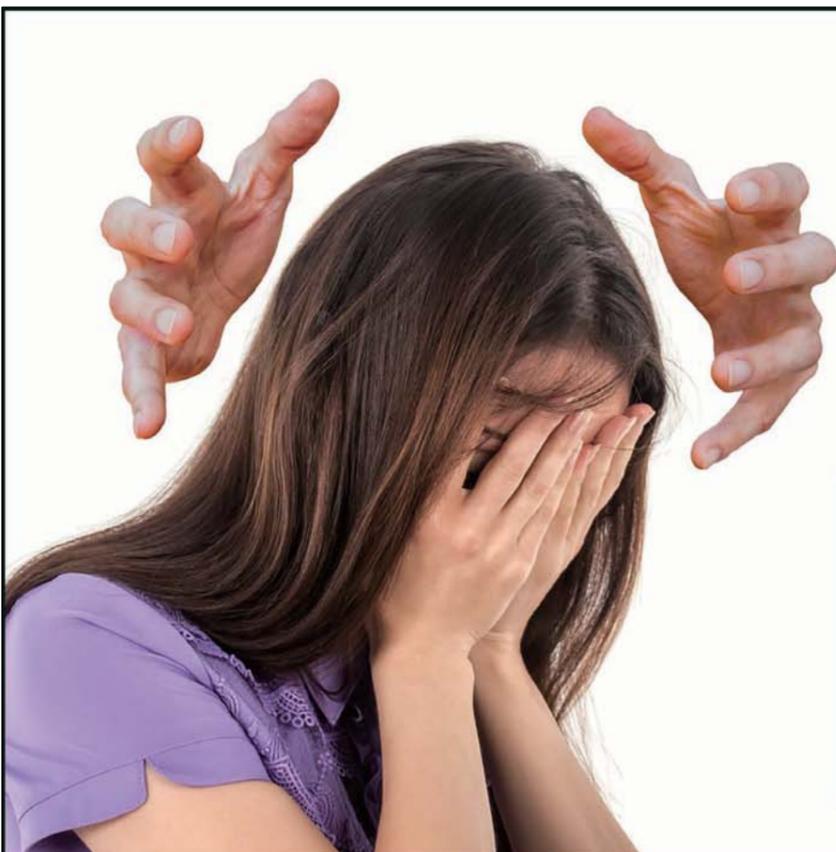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태풍·호우·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써 행정안전부의 공모 서면·발표심사와 현상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군은 곰소지구가 사업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방파제 파

손 및 유실 내수 침수, 급경사지 등 심각하게 노출된 자연재해 대상지에 대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해 해안 월파 방지시설, 우수지 및 배수펌프장 신설, 우수관로 개량, 생활권 급경사지 사면보강 등 재해발생요인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곰소리 일원은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이 많아 조위 상승으로 집중호우시 우수가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수차례 발생했으며 해수면 상승 시 파랑에 의한 월류 및 호안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 속에 생활해 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곰소지구 재해취약지역에 대해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해 최종 선정됐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